

데이트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서 용서: 투자모델에 대하여*

이 은 혜 이 초 룡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용서가 이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에 관한 많은 연구가 투자모델로 데이트 폭력 관계 유지를 설명해왔고 본 연구는 이에 용서 변인을 추가하여 설명력을 보충하였다. 이를 위해, 210명의 여대생에게 갈등척략 척도(CIS-II)와 투자모델척도, 이타적 망상척도, Enright 용서질문지, 관계 종결/지속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 중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였던 133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투자 모델 변인은 관계지속과 관련이 있었고, 헌신과 관계의 지속에 있어서 용서가 부분매개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과 파트너에게 한 투자, 대안의 질, 헌신에 의해서 여성 희생자가 공격적인 파트너를 용서하고 결과적으로 데이트 폭력관계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폭력적 상황을 유지하는데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앞으로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 폭력, 투자 모델, 용서

* “이 논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02-820-5125, E-mail : hyunmh@cau.ac.kr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 관계가 친밀해지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되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연인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발견된다. 갈등이 발생하면 연인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그 중에는 폭력과 같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은 “이성 교제 중 통제를 획득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Ronfeldt, Kimerling, & Arias, 1998).

부적절한 갈등해결방식인 데이트 폭력은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 서양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전체 학생의 20~50% 정도로 나타났다(서경현, 2004; 안귀여루, 2006; 유선영, 2000; 장희숙, 조현각, 2001; Bryant & Spencer, 2003). 데이트 폭력의 기준이 물리적 폭력에만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서경현, 2008) 정서·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한 연구도 있어 연구마다 발생률의 차이를 보이지만 데이트 폭력의 발생률은 결코 적지 않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는 내·외적 손상을 입게 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한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는데, 특히 남성 피해자보다 여성 피해자의 외상 정도가 심각하다. 피해 여성의 30%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Stroshine & Robinson, 2003). 피해자는 외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손상을 겪게 되는데 분노, 슬픔, 불안, 혼란감을 보고하였다(안귀여루, 2002; Simonelli & Ingram, 1998). 그리고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형태의 후유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Vitanza, Vogel, & Marshall, 1995).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 가해자의 폭력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교제가 계속 되면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첫째, 친밀한 사이의 폭력을 그대로 방치하고 용인할 경우 폭력의 강도가 강해지고 만성적이 될 수 있다. 피해 여성의 보고에 의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고 그 후 가벼운 폭력으로 나아가 점점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한다(White, Merrill, & Koss, 2001). 폭력 행동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후회의 표현과 함께 사과를 하고, 다시 폭력을 반복하는 폭력의 순환(cycle of violence)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반복을 거듭하면서 폭력 강도가 심해진다(Walker, 1979).

둘째, 데이트 폭력은 혼인을 통해 부부관계로 이어지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보고에 의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는 결혼하기 전 이성교제 기간에도 이미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김재엽, 1998). 또 O'Leary, Barling, Arias, Rosenbaum, Malone과 Tyree(1989)도 교제 기간에 폭력을 쓰는 남자가 폭력을 쓰지 않았던 남자보다 결혼 후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세 배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데이트 폭력 관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가정폭력과는 달리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심각하게 당하지 않는 한 법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신혜섭, 2007; Carlson, 1987).

놀라운 것은 가해자와의 폭력적인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연인의 폭력으로 내·외적 손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가 폭력 행동 이후 교제 관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Jezl, Molider, & Wright, 1996; Roscoe & Benaske, 1985). 국내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72.5%가 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 가해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김현옥, 2001).

연인 관계와 부부 관계는 남녀 간 함께 하는 시간이 길고 그 활동의 범위가 크다는 점, 상대에게 심리적·재정적 투자를 많이 하여 정서적 상처를 입기 쉽다는 점에서 유사하다(Carlson, 1987). 또 남녀의 교제 기간이 길고 관계가 친밀해져 그 성격이 부부 관계와 비슷해질수록 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들이 있었다(Makepeace, 1981; Mason & Blankenship, 1987). 이와 같이 결혼 전 이성 교제 폭력과 결혼 후 배우자 폭력은 그 특성이 유사하다는 점(Holtzworth- Munroe & Stuart, 1994)에서 그동안의 데이트 폭력 연구자는 배우자 폭력 연구에서 파트너 폭력의 발생과 그 폭력적 관계의 특성을 찾아왔다.

배우자 폭력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의 절반정도가 남편에게 돌아가 관계를 유지하였다(Schutte, Malouff, & Doyle, 1988; Strube, 1988). 특히 Lesser(1990)는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여성이 독립한 여성에 비해서 배우자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동일하게 반복하여 보고되고 있었다(정혜숙, 2007). 또 경제적 독립 외에 아이의 유무, 법적 구속력, 사회적 체제의 미비 등 많은 외적 요인이 폭력적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외에도 파트너 폭력의 피해 여성이 파트너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이유로 사회정책, 기회, 서비스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환경적 장애물’로 작용

한다는 설명도 있어왔다(Peled, Eisikovits, Enosh, & Winstok, 2000).

하지만 Martin 등(2000)은 많은 배우자 폭력 피해 여성이 경제적 자원, 법적 구속 등 외적 요소가 제거되어도 폭력적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외적 요인은 피해 여성이 폭력적 관계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충분한 설명하지 못하며 심리적 기제 등 내적요인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혜숙(2007)도 피해 여성에게 쉼터나 거주 공간 등 외적요인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해도 정서적, 상황적 동기와 같은 내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피해 여성이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우자 학대의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70-80년대부터 학습된 무기력, 상처를 주는 유대, 마조히즘, 계산된 행동, 개인병리적 입장 등의 다양한 이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 왔다(Strube, 1988; Young & Gerson, 1991). 또 페미니스트 이론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남녀 간 권력관계의 불균형으로 파트너 폭력을 설명하려 했으며(Lloyd, 1991)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어린 시절 부부 폭력을 목격하거나 신체적·성적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폭력을 통한 잘못된 갈등해결방식을 학습하게 되면서 훗날 다시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면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지고 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학대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안귀여루, 서경현, 2007; O’Leary, 1988). 그러나 초기 연구는 오랜 기간 학대관계에 머무는 피해 여성을 문제시하고 낙인을 찍는 ‘비난 모델’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의 연구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예측

되는 변인과 데이트 폭력과 요인의 관련성을 검토한 경우가 많았지만 데이트 폭력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험 요인의 나열보다 체계를 갖춘 설명력 있는 모델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트 폭력 관계를 머물거나 떠나는 결정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투자 모델이 주목을 받았다. 투자모델이란 개인이 이성교제에 느끼는 만족감과 함께 시간, 노력과 같은 물리적·심리적 비용을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 종료/ 지속 여부를 설명하는 모델이다(Rusbult, 1983). 특히 투자모델에서는 피해여성이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 머물거나 떠남을 결정하는 데에 '헌신'이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 많은 실증 연구에서도 피해여성의 고용상태, 경제적 수입보다 헌신이 폭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risch & MacKenzie, 1991; Schutte et al., 1988) 폭력관계에 머무는 여성은 폭력관계를 떠나는 여성보다 헌신 정도가 높았으며 피해 여성은 관계 만족도가 높고 상대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대안의 질이 낮을 때에 헌신하게 된다고 하였다(Rusbult & Martz, 1995). 즉 피해 여성이 관계를 떠나거나 머무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기질적이거나 병리적인 설명보다 개인이 투자한 비용, 대가 등을 고려한 설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리적 폭력 사건을 많이 경험한 여성일수록 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시간, 노력을 들이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관계가 결속되어 끊기 어려워진다는 결과가 있었다(Rhatigan & Street, 2005).

투자모델은 피해 여성의 데이트 폭력관계 종료/ 지속 여부를 설명할 수 있지만(Blackwell & Agnew, 2003; Rhatigan & Street, 2005),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정은, 현명호와 유제민(2007)이 자신의 데이트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폭력적 연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인 이타적 망상을 기존의 투자모델에 추가하여 헌신을 예측함으로써 설명력을 더한 투자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즉, 한국 문화의 특성상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는 관대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타적 망상을 할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 피해 여성이 내리는 종결/ 지속 결정 여부를 각 문화권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투자모델에 더해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데이트 폭력 관계를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학대관계를 끊기 어려워하는 피해 여성을 위한 개입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배우자 폭력과 데이트 폭력 연구자는 피해 여성의 내적 요인 중에서도 용서에 주목하여 폭력관계 종료/ 지속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용서는 역사, 철학 종교적 관점에서 자주 논의되어 온 개념으로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Gassin (1995)는 용서를 "의미 있고 깊은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해 부정적 사고, 감정, 행동을 극복하고 상대에 대해 긍정적 사고, 감정, 행동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McCullough (2000)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피하거나 복수하기 위한 동기의 친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면서,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하거나 상대 자체를 피하고 싶은 동기를 버리고 다시 가까워지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Enright(2001)는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적대감을 극

복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자비의 도덕원리에 근거하여 동정심, 무조건적인 자비, 관용, 도덕적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라고 정의 내렸다. 용서는 다중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정의를 갖게 되지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 적대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수용한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용서는 갈등으로 인해 상대와 훼손된 관계를 회복하고(Worthington & DiBlasid, 1990) 상처 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Davenport, 1991; Perry, 1992). 뿐만 아니라 용서는 갈등을 겪기 전보다 상대방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결속을 단단히 하도록 한다. Fenell (1993)은 친밀한 관계 중 하나인 부부 관계에서 용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관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용서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공감 정도가 높은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자를 용서하게 되면 폭력적인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sang & Stanford, 2007; Gordon, Burton, & Porter, 2004). 또 기독교 여성은 교리로서의 용서 때문에 남편의 폭력을 인내하는 경향이 있다(Wipple, 1988). 이와 유사하게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도 폭력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파트너를 용서하여 결과적으로 학대관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았다(Katz, Street, & Arias, 1997).

데이트 폭력 외에도 부부 폭력을 포함한 가정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대부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피해자가 그동안 상대와의 친밀한 관계에 쏟은 투

자를 유지하려는 동기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Fincham, 2000). Murray와 Holmes(1993)에 의하면 만족도, 친밀도, 관여도가 높은 관계 내에서 가해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경향이 높았다. Kearns와 Fincham(2005)는 이를 토대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상대 파트너의 가해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경향을 살펴보았다. 만족도가 높은 연인 관계의 경우 가해 사건이 발생하면 상대의 가해 행동에 대해 관대한 귀인을 하며 쉽게 용서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또 다른 연구(Harrison & Abrishami, 2004)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가해자인 파트너가 아닌 외부상황 탓을 함으로써 가해행동을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연인과의 데이트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폭력이 포함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뜻하지 않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Gordon 등(2004)은 용서가 피해여성이 겪는 폭력 상황을 유지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자가 폭력적 가해 행동을 관대히 보고 용서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폭력 행동 자체를 용인한다는 암묵적 표현이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용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폭력적 상대와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시키게 되고, 관계가 유지되면서 폭력의 순환은 계속 된다. 다시 말해 가해자는 폭력이 어느 정도 허용된 상황에서 폭력적 가해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배우자 폭력으로 쉽터에 머무르는 여성의 보고에 따르면 폭력적 배우자와 관계를 끊지 못하면 더 심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한다고 하였다(Griffing et al.,

2002). 심지어는 반복되는 폭력 관계를 종결하지 못했던 여성 중 일부는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한다(Johnson & Hotton, 2003). 이와 같은 위협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친밀한 폭력 관계를 종결하거나 유지시키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양과 동양의 데이트 폭력 기제와 특성은 문화·사회적 차이로 인해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서양에 비해 동양 특히 한국 문화는 내집단 편애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최상진, 박수현, 1990). 이러한 사회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내집단인 연인의 반복적 폭력 행동을 더 용인하고 용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데이트 폭력에서의 용서 역할을 알아본 대부분의 연구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 아닌 시나리오를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데이트 폭력을 겪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용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이정은 등(2007)의 이타적 망상을 추가한 투자모델의 재검증과 함께 용서 변인이 기존의 투자모델 변인과 함께 용서가 피해여성의 관계 지속 결정 과정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는 그동안 데이트 폭력 관계 종결/ 지속 여부를 설명해왔던 투자모델에 설명력을 더할 뿐 아니라 용서라는 새로운 시각을 더해 데이트 폭력 관계를 한층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 폭력 연구에도 유용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폭력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근절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기제에 투자모델에 더하여 용서가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투자모델 변인, 용서, 관계 지속의도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수정된 투자모델의 변인인 관계 만족도, 투자 정도, 대안의 질, 이타적 망상이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함께 용서가 데이트 폭력 관계 지속의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2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이성을 사귄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질문지를 완성하지 않은 사람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경험을 했거나 현재 데이트 폭력 경험을 한다고 판단되는 133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1.3세(SD=1.8)였다.

측정 도구

데이트 폭력 경험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 (1996)이 개발한 개정판 갈등척략 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 CTS II)이다. 이 척도는 이성교제 당시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용했던 갈등척략을 측정하는 도구로 김정란과 김경신(1999)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되었다. 총 22 문항이며 갈등척략으로서 사

용한 심리적 폭력 11 문항, 신체적 폭력 7문항, 성적 폭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1번), ‘짜증나는 목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다’(2번), ‘침묵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5번)는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해결 책략이므로 데이트 폭력 경험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제외하였다. 없음(1점)에서 매우 자주(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경험을 자주 경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타당도 계수(Cronbach alpha)는 .82 이었다.

투자모델 척도

Rusbult, Martz와 Agnew(1998)이 개발한 투자모델척도(Investment Model Scale)를 이정은 등(2007)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8문항이며 9점 리커트 척도로 이성교제 동안 상대방에 대한 관계 만족도 11문항, 헌신 7 문항, 투자 정도 10문항, 대안의 질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타당도 계수는 각각 만족도 .91, 헌신 .89, 투자 .87, 그리고 대안은 .81 이었다.

이타적 망상 척도

이정은 등(2007)이 구성한 척도로 데이트 상대에 대한 피해자가 보고하는 망상과 관련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총 6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내가 연인의 폭력적인 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노력과 사랑으로 폭력적인 연인의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내 연인은 변할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타당도 계수는 .96 이었다.

관계 지속/ 종결 의도. 관계지속 및 종결의

도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관계 지속/ 종결 여부. 폭력적 이성교제 관계를 종료했는지 현재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1. 그 사람과 현재 만나고 있다, 2. 그 사람과 헤어졌다로 나누어서 물었다.

결합 의도 질문지. 폭력적 데이트 관계를 현재 종결한 참여자의 경우 ‘결합 의도 질문지(The Intent to Retur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Gordon 등(2004)이 쉼터 여성이 폭력적 배우자에게 돌아가 결합하려는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이성교제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하였다. 데이트 폭력 관계를 지속하는 많은 여성이 폭력적 연인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보아(Strube, 1988) 피해여성에게 ‘헤어진 후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결합의도’를 측정하는 것은 패턴을 예측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합 의도는 피해여성에게 데이트 폭력 종결/ 지속을 결정내리는 기제 파악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총 4문항으로 ‘난 그 이성친구가 많이 그립다’, ‘나는 그 이성친구를 다시 볼 계획이 있다’, ‘나는 그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우리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란다.’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완전히 동의(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를 결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고 내적 일치도 계수는 .95 였고 본 연구에서는 .97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연인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관계 지속 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폭력적 연인과 헤어진 경우, 결합 의도를 파악하여 폭력적 연인에게 돌아가 데이트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 정도를 판단하였다.

용서 척도

Enright와 동료(1991)가 개발한 Forgiveness Inventory를 김광수(1999)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0문항으로 정서적 용서 20문항, 행동적 용서 20문항, 인지적 용서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정말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97로 나타났다.

절차 및 통계분석

설문지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참여의 동의를 구하였고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중도에 그만두어도 된다고 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이었으며 이를 위해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데이트 폭력 발생률

연구대상자 210명 중 이성교제 동안 어떤 형태로든 한번이상 데이트 폭력(M=89.5, SD=7.8)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133명(63%)이었다. 이 중 122명이 심리적 폭력을 보고 했으며 55명이 신체적 폭력을, 성적 폭력을 48명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신체적·성적 피해를 동시에 보고한 이는 25명이었다. 55명이 오로지 심리적 폭력만 경험하였고, 신체적 피해만 보고한 이는 6명, 성적 폭력 피해만 당한 사람은 5명이었다. 데이트 폭력 연인과 헤어진 경우는 75명(56%)이었고 현재 데이트 폭력 연인과 사귀고 있는 경우는 58명(43%)이었다.

투자모델, 용서, 관계지속의도 상관관계

관계 만족도(M=38.6, SD=12), 투자 정도(M=31.4, SD=12.6), 이타적 망상(M=11, SD=7.5), 헌신(M=19, SD=5.9)은 관계 지속의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던 반면, 대안의 질(M=4, SD=9)은 관계 지속 의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용서(M=172.5, SD=35.2)는 관계 지속의도

표 1. 데이트 폭력 피해의 발생 명수 (n=210)

|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 | 해당 명수 / 전체 명수 |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 | 해당 명수 / 전체 명수 |
|--------------|---------------|------------------|---------------|
| 전체 데이트 폭력 경험 | 133 / 210 명 | 물리적 폭력(신체적·성적)경험 | 78/ 133 명 |
| 심리적 폭력 경험 | 122 / 133 명 | 신체적·성적 폭력 동시 경험 | 25/ 133 명 |
| 신체적 폭력 경험 | 55 / 133 명 | 신체적 폭력만 경험 | 6/ 133 명 |
| 성적 폭력 경험 | 48 / 133 명 | 성적 폭력만 경험 | 5/ 133 명 |

표 2. 각 변인의 상관관계

(n=133)

|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관계 만족도 | | | | | | | | |
| 2. 투자 정도 | .570** | | | | | | | |
| 3. 대안의 질 | -.250** | -.237** | | | | | | |
| 4. 이타적 망상 | .218* | .233** | -.241** | | | | | |
| 5. 헌신 | .449** | .486** | -.359** | .518** | | | | |
| 6. 용서 | .509** | .220* | -.237** | .280** | .262** | | | |
| 7. 관계 지속의도 | .608** | .462** | -.270** | .250** | .380** | .563** | | |
| 8. 물리적 폭력 | -.187* | .134 | -.066 | .092 | .048 | -.146 | -.045 | |

* $p < .05$, ** $p < .01$

($M=13$, $SD=6$)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신체적·성적 폭력은 관계 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관계 만족하고 투자를 하고 대안이 없고 상대방에게 헌신을 할수록 용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서를 할수록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만족도, 투자 정도, 대안의 질, 이타적 망상의 헌신 예측

투자모델의 하위 변인인 관계 만족도, 투자 정도, 대안의 질의 헌신 예측(Model 1, Model 2)과 이에 더하여 이타적 망상이 헌신을 예측하는지(Model 3)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 만족도, 투자 정도가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Model 1은 헌신을 27%로 예측하였다($R^2=.27$, $F(1,130)=33.058$, $p<.01$). Model 1에 대안의 질을 추가한 Model 2는 헌신을 31%로 예측하였다($R^2=.31$, $F(1,129)=21.156$, $p<.05$). 마지막으로 Model 2에 이타적 망상을 추가한

Model 3는 헌신을 44%로 예측하였다($R^2=.44$, $F(1,128)=27.301$, $p<.05$).

헌신이 관계 지속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용서의 매개효과

헌신은 관계 지속의도를 13%로 예측하였고($R^2=.13$, $F(1,131)=39.020$, $p<.01$) 용서도 관계 지속의도를 31%로 예측하여 헌신보다 설명량이 컸다($R^2=.31$, $F(1, 131)=60.837$, $p<.01$). 이로 볼 때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관계 지속의도를 가지게 되고 이 관계를 용서가 매개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매개효과가 입증되려면 헌신에서 관계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헌신에서 용서로의 영향이 유의하며, 헌신과 용서를 독립변인으로 관계 지속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헌신이 관계 지속의도를 설명하는 양보다 헌신과 용서가 관계 지속의도를 설명할 때의 헌신의 설명량이 작아야 한다(Baron & Kenny, 1986). 그리고 Sobel 검증을

표 3. 투자모델 변인의 헌신 예측

종속변인: 헌신 (n=133)

| Model과 변인 | β | t | R^2 (adj- R^2) |
|----------------|---------|----------|---------------------|
| Model 1 | | | |
| 관계 만족도 | .25 | 2.805** | |
| 투자 정도 | .34 | 3.769** | .28 (.27) |
| Model 2 | | | |
| 관계 만족도 | .21 | 2.420* | |
| 투자 정도 | .31 | 3.498** | |
| 대안의 질 | -.23 | -3.089** | .33 (.31) |
| Model 3 | | | |
| 관계 만족도 | .18 | 2.232* | |
| 투자 정도 | .26 | 3.215** | |
| 대안의 질 | -.16 | -2.344* | |
| 이타적 망상 | .38 | 5.566** | .46 (.44) |

* $p < .05$, ** $p < .01$

실시하여 설명량의 변화가 유의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용서는 헌신과 관계 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독립변인 헌신이 매개변인 용서로 가는 경로를 a, 매개변인 용서가 종

속변인인 관계 지속의도로 가는 경로를 b라고 할 때 경로 a, b가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Z_{ab} = 2.786$ 으로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여 부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4. 헌신과 관계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검증

(n=133)

| Model과 변인 | β | t | R^2 (adj- R^2) |
|---------------|---------|---------|---------------------|
| 독립변인: 헌신 | | | |
| 종속변인: 관계 지속의도 | .38 | 4.702** | .14 (.13) |
| 독립변인: 헌신 | | | |
| 종속변인: 용서 | .26 | 3.108** | .07 (.06) |
| 독립변인: 헌신 | .25 | 3.473** | |
| 용서 | .49 | 6.928** | .37 (.36) |
| 종속변인: 관계 지속의도 | | | |

* $p < .05$, ** $p < .01$

논 의

본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을 어떤 형태로든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210명 중 133명(63%)이었으며, 그 중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도 58%나 되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사귀고 있는 경우가 43%로 이전 연구(김현옥, 2001)와 같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투자모델의 변인이 피해여성의 데이트 폭력 관계 종결/ 지속 결정에 있어서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또한 투자모델 변인에 대하여 용서가 데이트 폭력 관계 종결/ 지속 여부를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 연구와 대부분 일치된다.

첫째, 투자모델 변인, 용서, 관계 지속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계 만족도가 높고 대안의 질이 낮으며 투자 정도가 높을수록 폭력을 행사한 상대에 대한 헌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진행되었던 투자모델 연구(Rusbult, 1980; 1983)와 일치한다. 둘째, 투자모델의 변인인 관계 만족도, 투자 정도, 대안의 질, 이타적 망상이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투자모델을 개발한 Rusbult(1980, 1983)는 ‘헌신 = 관계 만족도-대안의 질-투자 정도’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 역시 관계 만족도, 투자 정도, 대안의 질이 유의하게 헌신을 예측하였다. 또한 폭력적 파트너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여성의 이타적 망상이 관계 만족도, 투자 정도, 대안의 질과 함께 헌신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명력도 높아서 이정은 등(2007)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피해여성의 헌신은 데

이트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에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관계 종결/지속의 직접적인 예측 요인이었다.

종합해보면 피해여성은 연인에게 관계만족도가 높고 투자정도가 높을 경우, 관계를 떠나면 투자했던 것을 상실한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대안의 질이 낮을 때에는 연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연인에게 헌신하였다. 그리고 피해 여성은 폭력적 연인에게 헌신함에 따라 관계를 종결하기 어렵게 되고 더 나아가 확대관계에 속박된다. Rusbult(1983)는 헌신이 관계에 대한 긍정적 편향을 하게 만들고 관계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때로는 관계가 위태로운 경우에도 헌신을 함으로써 관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결국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헌신은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의지를 가지게 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종결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용서 변인과 투자모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용서가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용서와 결혼만족도가 정적 관계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배미자, 2004)와 일치한다. 그리고 Fincham과 Beach(2007)도 아내의 용서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면서 아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용서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데이트 관계에 만족할수록,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행동을 용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또 헌신과 함께 용서가 데이트 폭력 관계 지속의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는데, 헌신뿐

아니라 용서 역시 피해여성이 데이트 폭력 관계를 종결하거나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투자모델 변인인 헌신보다 용서가 관계 종결/지속을 예측함에 있어 설명력이 더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하여 피해 여성이 폭력을 저지른 연인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폭력을 용서하였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헌신과 데이트 폭력 관계 종결/지속 여부를 용서가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존의 폭력적 연인관계에 대한 투자모델의 설명에 더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Katz 등(1997)에 의하면 피해 여성이 폭력의 타를 자신에게 하는 것이 관계 유지를 예측하고 용서가 피해 여성의 귀인과 데이트 폭력 관계 유지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트너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가 폭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Gordon et al., 2004; Tsang & Stanford, 2007)는 데이트 폭력의 여러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여겨졌던 투자모델 변인의 헌신보다 용서의 설명력이 더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관한 연구(오영희, 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특히 이성 친구에게 상처를 받는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이 용서를 개인내적인 측면이 아닌, 대인관계적이며 화해지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상처를 준 가해자를 용서하게 되면, 가해자와 관계를 개선하

고 화해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본 연구와 함께 살펴볼 때 데이트 상대에게 심리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심적 상처를 받은 상당수의 피해 여성들은 대인 관계적 용서를 통해 데이트 폭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여성의 데이트 폭력 관계 종결/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인지 과정에는 헌신, 용서 외에 많은 변인이 독립적이고 단순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며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Gordon 등(2004)의 연구는 배우자 폭력 피해 여성의 용서가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피해 여성의 용서는 연인과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의 반응이지만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공허하고 부정적인 용서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학대관계에 구속당하는 시발점이 용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서의 용서가 과연 건강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용서가 오히려 가해자가 앞으로 가해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부추길 수도 있다. 성급하게 용서해주는 것은 가해자의 가해행동에 대한 속죄 동기를 줄이게 될 수 있으며(Leith & Baumeister, 1998)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용서를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쉽게 용서 받는 것은 가해자가 다시 용서를 기대하게 하고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런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Wallace, Exline과 Baumeister(2008)의 연구에서 어떤 가해자는 용서를 하지 않은 사람

보다는 보복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용서한 사람에게 다시 가해행동을 반복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용서는 상처와 부정적인 정서를 치유하는 데에 효과적이지만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해행동 반복을 부추길 수도 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영향력이 줄어들게 하며 또한 가해사건의 이전 상태로 회복하여 돌아가게 한다(Baumeister, Exline, & Sommer, 1998). 하지만 특정 상황 자체가 가해사건인 경우는 이전과 같이 가해사건이 또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상황에서는 가해사건인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피해 여성은 가해자의 죄책감으로 인한 사과와 변화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변화를 기대하며 가해자를 용서하며 관계를 지속한다는 보고와 일치되는 점이다(정윤주, 2008; 정혜숙, 2007; Anderson, et al., 2003).

이런 측면에서 데이트 폭력 관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 전문가는 연인에게 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력행동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서경현, 2008) 이러한 맥락에서 피해 여성의 대처법 중 가해자에 대한 용서의 방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적인 가해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용서 패턴이나 형태는 ‘자기 보호적’이어야만 할 것이다. 용서 전문가는 가해자의 가해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한 채로 천천히 용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Smedes, 1996). 성급한 용서는 피해자에게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조금씩 용서함으로써 가해자가 폭

력적인 가해 행동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해자도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폭력 행동에 대해 스스로의 분노를 통제하는 법과 잘못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친밀한 폭력 상황에서 올바른 용서를 통한 접근은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배우자 폭력을 경험하는 피해 여성에게도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최초 폭력의 발생시기와 교제 기간과 같은 데이터를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여성의 관계 지속의도가 반드시 관계의 지속으로 이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후에는 데이트 폭력 관계에 대해 종단 연구를 시행하여 실제적 관계 종결/ 지속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데이트 폭력 연인과 관계를 현재 지속하고 있는 피해여성은 관계 지속의도가 높을 것이라고 간주하였으나 피해 여성의 관계에 대한 행동과 의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폭력적 연인과 현재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여성일지라도 앞으로의 데이트 폭력 관계 지속/ 종결 의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남성도 대상에 포함하고 성차를 고려하여 관계 지속에 관련한 데이트 폭력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용서를 정서적 용서, 행동적 용서, 인지적 용서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용서의 측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피해 여성은 가해자의 반복되는 폭력행

동과 사과 등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분노, 연민이라는 양가감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측정과 함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용서 변인이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관계 지속의 강력한 예측 변인이라는 결과와 용서, 투자모델 변인의 상관 결과만 제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용서와 투자모델 변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더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존의 모델에 문화, 상황적 환경에 맞는 변인을 추가하는 것은 현상을 다차원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인을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이론적 설명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가해자의 사과, 피해자의 이타적 망상, 용서 변인 등을 고려해 새로운 모델을 구성, 개발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사전 연구 중 하나로써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엽 (1998). 한국가정의 폭력실태와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 4회 학술세미나,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김현옥 (200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이성교제와 교제폭력의 실태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미자 (2004). 부부갈등대처 및 용서와 결혼만족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 폭력 피해자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2), 21-39.
- 신혜섭 (2007). 데이트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2(2), 149-170.
- 안귀여루 (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5-75.
- 안귀여루 (2006).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09-726.
- 안귀여루, 서경현 (2007). 성장기 가정 내 폭력 경험이 성인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부모간의 폭력 관찰 경험과 자신에 대한 폭력 행동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83-100.
-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 467-486.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 폭력 피해와 이성교제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수정 - 이타적 망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83-995.
- 정윤주 (2008). '데이트 폭력' 구성과 대응에 관한 연구: 20대 여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 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7-202.
- 정혜숙 (2007). 매맞는 여성의 떠날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이유. *사회복지연구지*, 32, 269-298.
- 최상진, 박수현 (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69-79.
- Anderson, M. P., Gillig, M., Sitaker, K., McCloskey, K. M., & Grigsby, N. (2003). Why doesn't she just leave: A descriptive study of victim reported impediments to her safet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3), 151-15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Exline, J. J., & Sommer, K. L. (1998). The victim role, grudge theory, and two dimensions of 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Ed.), *Dimensions of Forgiveness* (pp.79-104). Radnor,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 Blackwell, L. B., & Agnew, C. R. (2003). Commitment and its theorized determinants: A meta-analysis of the investment model. *Personal Relationships*, 10, 37-57.
- Bryant, S. A. & Spencer, G. A. (2003).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about attributing blame in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6), 369-376.
- Carlson, B. E. (1987). Dating violence: A research review and comparison with spouse.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8(1), 16-23.
- Davenport, D. S. (1991). The functions of anger and forgiveness: Guidelines for psychotherapy with victims. *Psychotherapy*, 28, 140-144.
-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Vol. 1, pp.123-15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nright, R. D. (2001). *Forgiveness is a choice: A step-by-step process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enell, D. (1993). Characteristics of long-term first marriag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5(4), 446-460.
- Fincham, F. D. (2000). The kiss of the porcupines: From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forgiving. *Personal Relationships*, 7, 1-23.
- Fincham, F. D. & Beach, S. R. H. (2007). Forgiveness and marital quality: Precursor or consequence in well-established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4), 260-268.
- Frisch, M., & MacKenzie, C. (1991). A comparison of formerly and chronically battered women on cognitive and situational dimensions. *Psychotherapy*, 28(2), 339-344.
- Gassin, E. A. (1995). Social cognition and forgiveness in adolescent romance: An

- intervention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Gordon, K. C., Burton, S., & Porter, L. (2004). Predicting the intentions of women in domestic violence shelters to return to partners: Does forgiveness play a ro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331-338.
- Griffing, S., Ragin, D. F., Sage, R. E., Madry, L., Bingham, L. E., & Primm, B. J. (2002). Domestic violence survivors' self-identified reasons for returning to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306-319.
- Harrison, L. A., & Abrishami, G. (2004). Dating violence attribution: Do they differ for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who have a history of dating violence? *Sex Role, 51*, 543-550.
- Holtzworth-Munroe, A., & Stuart, G. L. (1994). Typologies of male batterers: Three subtyp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Psychological Bulletin, 116*, 476-497.
- Jezl, D. R., Molider, C. E., & Wright, T. L. (1996).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abuse in high school dating relationships: Prevalence rate and self-esteem issue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3*(1), 69-87.
- Johnson, H., & Hotton, T. (2003). Losing Control: Homicide Risk in Estranged and Intact Intimate Relationships. *Homicide Studies, 7*(1), 58-84.
- Katz, J., Street, A., & Arias, I. (1997).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appraisals and responses to dating violence scenarios. *Violence and Victims, 12*, 265-276.
- Kearns, J. N. & Fincham, F. D. (2005). Victim and perpetrator accounts of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Self-serving or relationship-serving bia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321-333.
- Leith, K. P., & Baumeister, R. F. (1998). Empathy, shame, guilt, and narratives of interpersonal conflicts: Guilt-prone people are better at perspective taking. *Journal of Personality, 66*, 1-37.
- Lesser, B. (1990). Attachment and situational factors influencing battered women's return to their mates following a shelter program. In K. Pottharst (Ed.), *Research Explorations in Adult Attachment* (pp.81-128). New York: Peter Lang.
- Lloyd, S. A. (1991). The darkside of courtship: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Family Relations, 40*, 14-20.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37-102.
- Martin, A. J., Berenson, K. B., Griffing, S., Sage, R. E., Madry, L., Bingham, L. E., & Primm, B. J. (2000). The process of leaving an abusive relationship: The role of risk assessments and decision-certaint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2), 109-122.
- Mason, A., & Blankenship, V. (1987). Power and affiliation, stress, and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42*, 203-210.
- McCullough, M. E. (2000).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 Psychology*, 19, 43-55.
- Murray, S. L., & Holmes, J. G. (1993). Seeing virtues in faults: Negativ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personal narratives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707-722.
- O'Leary, D. K. (1988). Physical aggression between spouses: A social learning theory perspective. *Handbook of Family Violence*. New York, NY: Plenum Press.
- O'Leary, D. K., Barling, J., Arias, I., Rosenbaum, A., Malone, J., & Tyree, A. (1989). Prevalence and stabilit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spous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263-268.
- Peled, E., Eisikovits, G. E., & Winstok, Z. (2000). Choice and empowerment for battered women who stay: Toward a constructivist model. *Social Work*, 45(1), 9-25.
- Perry, P. J. (1992). *Group Psychotherapy for Eating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Rhatigan, D. L., & Street, A. E. (2005). The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decisions to leave dating relationship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2), 1580-1597.
- Ronfeldt, H. M., Kimerling, R., & Arias, I. (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70-78.
- Roscoe, B., & Benaske, N. (1985).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Similarities in patterns of abuse. *Family Relations*, 34, 419-424.
- Rusbult, C. E.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01-117.
- Rusbult, C., & Martz, J. (1995). Remaining in an abusive relationship: An investment analysis of nonvoluntary depen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6), 558-571.
- Rusbult, C. E., Martz, J. M., & Agnew, C. R. (1998). The investment model scale: measuring commitment level, satisfaction level, quality of alternatives, and investment size. *Personal Relationships*, 5, 357-391.
- Schutte, N., Malouff, J., & Doyle, J.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persuasive techniques of the batterer, and returning to a battering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8(5), 605-610.
- Smedes, L. B. (1996). *Forgive and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Harper.
- Simonelli, C. J., & Ingram, K. M. (1998).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en experiencing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667-681.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Stroshine, M. S., & Robinson, A. L. (2003). The decision to end abusive relationships: The role of offender characteristic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0(1), 97-117.
- Strube (1988). The decision to leave an abusive relationship: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issues. *Psychological Bulletin*, 104, 236-250.
- Tsang, J., Stanford M. S. (2007). Forgivenes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influence of victim and offender variab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653-664.
- Vitanza, S., Vogel, L. C. M., & Marshall, L. L. (1995). Distress and symptom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bus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0, 23-34.
-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and Row.
- Wallace H. M., Exline J. J., & Baumeister R. F. (2008).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forgiveness: Does forgiveness deter or encourage repeat offen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453-460.
- Whipple, V. (1988). Counseling battered women from fundamentalist Christian backgrounds. *Counseling and Values*, 32, 140-143.
- White, J. W., Merrill, L., & Koss, M. P. (2001). Predictors of premilitary courtship violence in a Navy recruit samp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 910-927.
- Worthington, E. L. & DiBlasio, F. A. (1990). Promoting mutual forgiveness within the fractured relationship. *Psychotherapy*, 27, 219-223.
- Young, G., & Gerson, S. (1991). New psychoanalytic perspectives on masochism and spouse abuse. *Psychotherapy*, 28(1), 30-38.
- 1차원고접수 : 2009. 6. 20.
수정원고접수 : 2009. 7. 22.
최종게재결정 : 2009. 8. 17.

The addition of forgiveness as a factor in sustaining dating violence relationships to the Investment model

Eun-Hye Lee

Cho-Rong Lee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ed to establish how forgiveness contributes to the abusive relationship sustaining in the dating violence relationship. The investment model was commonly used by many studies to explain the maintenance dating violence relationships. This study strengthens the explanation by using a forgiveness variable. A sample 210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conducted the Conflict Tactics Scales(CTS), Investment Model Scale(IMS), Altruistic Delusion Scale(ADS),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EFI), Intent to Return Questionnaire. After that, the data of 133 who experienced dating violence were analyze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vestment model variables was associated with the commitment variable, and the forgiveness partially mediated connection between commitment and Intent to Return. The results mean that because of the satisfaction, investment to the partner, quality of alternatives, and commitment, female victims forgive the offensive partner, and consequently, dating violence relationship was sustained. This results suggests the forgiveness can effect maladaptively to the maintenance of abusive situation. And the future study for examining adaptive forgiveness of victims was suggested.

Key words : dating violence, investment model, forgiveness